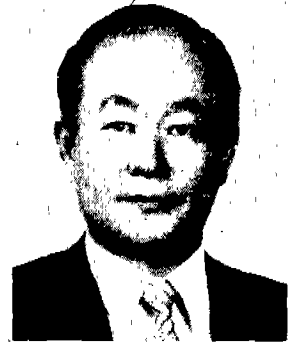


# 南北韓送電線 連結되었으면 北의 石炭으로 良質電力交換 可能



崔 鍾 洸

大韓電氣協會副會長 ·  
暁星重工業(株)社長

어느덧 甲子年을 보내고 乙丑年을 맞이 하였다.  
한 해가 바뀌었다고 새삼스러이 큰 變化가 있을 수 없고, 다만 前해의 連續일 따름인데, 굳이 時間의 單位로써 해(年)가 쓰이고 있으니 묘한 생각이 든다.

우선 85年の 電氣界를 展望하여 보면 前年, 即 1984年 세모에 保寧火力發電所가 竣工을 보고 運轉에 들어감으로써 總發電設備容量이 完全히 1000萬KW를 넘긴 1400萬余KW에 이르고 곧 竣工하게 될 古里原子力 5號機를 합치면 무려 1500萬余KW에 達하는 設備를 保有하게 되는 해로서 그야말로 先進國規模에 達할 程度를 내딛는 해가 될 것이다.

여기에 忠州水力이 追加된다고 보면 우리 設備容量의 規模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.

새삼 37年前 北으로부터 供給받던 불과 10萬KW 남짓의 電力供給이 事前 豫告없이 不意에 中斷되어 한동안 準暗黑世界를 經驗하였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실로 감개무량할만큼 엄청난 量의 增加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.

送電線路는 이제 超高壓 345KV가 해마다 작실히 擴張에 擴張을 거듭하여 送電의 根幹을 이룩하게 되었으며 84年 12月에 正式竣工을 본 3個所의 가스變電所와 1個所의 가스開閉所의 運轉을 契機로

電力輸送, 即 送變電技術水準의 先進化가 公고히 確立되는 해로 展望된다.

그동안 우리의 電力事業은 1982年初에 1991年을 目標로 하는 第5, 第6次電源開發 10個年 計劃이 樹立된 것을 보더라도 主로 電源, 即 發電設備에 置重돼 왔었음을 알 수 있다.

그러나 今年를 契機로 發電設備 豫備率이 매우 높아질 것이 分明하므로 올해부터는 生産(發電)에서 流通(送配電) 設備分野에 더 많은 關心과 開發努力을 기울여야 할 해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진다.

그리하여 生産에서 消費까지의 과정이 合理化, 高度化되어 결국은 電力Energy Saving 效果를 얻도록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.

産業界 特히 工業品을 製造하는 과정에서 실지로 나타나는 現象을 分析하여 보면 電氣의 品質이 工業品 製造原價에 미치는 영향이 至大한 것임을 깊이 認識하여야 할 것이다.

例컨데 어떤 商品의 生産工場에 한번의 停電이 있다고 할 때, 單純히 停電時間 동안 만큼의 生産이 中斷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, 再始動하는데 所要되는 時間과 電力, 그리고 製品의 品質低下를 誘發하고, 따라서 生産性 低下를 일으키게 되는



現實을 심각하게 認識해야 할 것이다.

이와같이 大体로 豫告, 非予告停電을 莫論하고 하  
루속히 없애야할 停電現象은 送配電設備의 여러가  
지 不備함에서 그 큰 原因을 찾을 수 있음을 볼 때,  
더욱 그 重要함과 아울러 時急히 해결해야할 問題  
라고 指摘하고 싶다.

또한 85年은 86, 88年에 한해 더 가까워진 해 이  
다.

即, 86年은 이제 바로 1作앞이고 88年은 불과 3  
年 앞으로 다가선 해이다. 世界各國에서 많은 손님이  
찾아 왔을 때 여러면에서 갖추어야할 일이 많지만,  
그 中에서도 電氣分野로서는 必要할 때 必要한  
場所에 必要한 만큼의 質좋은 電力을 確實히 安心  
하고 充分히 쓸수 있는 차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

지난해 九月 폭우로 인한 水災가 契機가 되어 끊  
졌던 南北對話가 再開됨과 關聯하여 결코 성급하게  
낙관하며 커다란 期待를 걸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  
나 이때 雙方間에 提起된 提案中 鐵道連結이란 項  
목이 있었다. 本人의 個人的 所見으로서는 이 南北  
鐵道連結도 共感이 가고 實現性이 있어 보인다.

그러나 보다 더 合理的이고 實現可能하고 또 運  
營上 애로가 훨씬 적으리라 豫想되는 것으로서 南  
北 送電線의 連結를 提起해봄직 하다고 본다.

특히 앞서 豫測한바 年内發電設備容量이 約 1500  
萬余KW에 육박하고 昨年의 尖頭負荷值를 감안하더  
라도 분명히 電源供給能力面에서는 상당한 余裕를  
갖게 되었고, 그 동안 建設, 運轉을 통한 풍부한 經  
驗을 바탕으로 自信있게 電力의 安定的供給을 期待  
할 수 있을만큼 우리 電氣界도 상당한 能力이 갖추  
어졌다고 判斷할 수 있지않을런지?

만일 共感을 얻는다고 假定하면 南北으로 連結된  
鐵道便으로 北에서 生産된 石炭을 南으로 싣고와서  
韓電의 高效率의 發電所를 거쳐 發電된 良質의 電  
力を 北으로 送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南北平  
和統一의 매우 훌륭한 촉진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는

지?

이렇게하여 北으로 送電된 電力으로 우리의 同  
族인 北同胞의 눈과 마음을 밝혀준다면 매우 뜻  
있고 실제 運營上의 어려움도 그 어느 다른 品目보  
다도 가장 安全하게 다룰 수 있는 分野가 아니겠는  
가?

또한 南北韓을 합친 Energy의 效率의管理라는 結  
果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.

아름든 85年의 우리 電氣界는 電力生産 設備面에  
서 充分한 余裕를 갖게 되는것은 分明한 것으로 展  
望되며 1947年 北으로부터 不時의 送電斷切에서  
겪었던 쓰라린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실로 엄청난  
변화를 실감하면서 對北送電提起를 생각해봄직 하  
다고 본다

年間 Energy節減 1조원에 도전하는 실천의 첫  
해 이기듯한 85年은 흔히 Energy節減하면 一次的  
으로 燃料인 기름, 石炭等 一次Energy에 置重하는  
경향이 많은데, 오히려 가장 高價 Energy인 電氣  
Energy의 슬기로운 節減에 關心과 努力을 더 기울  
여야 할 것이다.

다행히 좀 늦기는 하였으나 Inverter等 具體的이  
고 實用的인 電氣Energy 節減을 위한 設備가 國產  
化되기 시작하였고 점차 보급될 展望이어서 매우 바  
람직한 現象이며 이에 그치지 않는 不斷한 努力이  
要求되고 있다.

이리하여 85년부터는 電力使用合理化나 電力機器  
의 高效率化를 통한 第二의 電源設備效果를 얻도록  
새로운 方法展開를 도모하는 해가 되었으면 바람직  
하다고 생각된다.

85年은 電氣界도 國力伸張의 隊列에서 매우 重要  
한 位置를 占하게된 해로서, 電氣界의 금지를 意識  
하면서 후회없는 한해가 되도록 모든 電氣人은 맡  
은바 分野에서 倍前의 努力과 協同으로 外債節減,  
國家發展, 國力伸張의 큰 몫을 다하여야할 한 해가  
될 수 있을 것으로 展望해 본다. \*